

1. 복 있는 사람은 “멀리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1절은 먼저 멀리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한 꾀(충고), 그런 꾀를 따라가는 길(방향), 그리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오만)입니다. 이 모든 모습의 공통된 뿌리는 자기사랑과 자기중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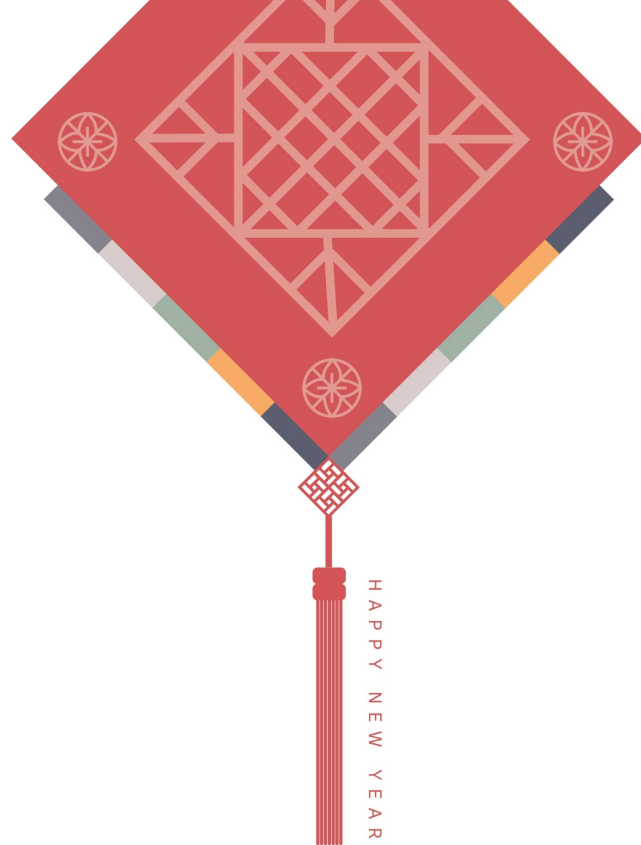
그래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잘 됐나?”, “누가 더 성공했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명절에는 말이 많아지고, 비교도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삶의 끝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겨와 같습니다. 겉은 곡식처럼 먹음직해 보여도, 속이 비어 가볍고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보다 내 기분, 내 이익, 세상의 평가가 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관계도 쉽게 깨집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종종 “보기 좋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이 곧 유익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도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복 있는 사람은 “붙들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자주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 번에 외우려 하기보다 자주 가까이 두고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면,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 단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그 좋은 것을 받는 길도 함께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상처럼 무엇인가를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행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2026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예배 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묵상기도 ----- 다 같 이

사도신경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 다 같 이

1절.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대표기도 ----- 가족 중에서

우리 가정에 주인되신 하나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몸과 마음에 위로와 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태도를 지켜주셔서,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작은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올 한해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돕고 함께하며 가정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기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정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00:1~5 ----- 다 같 이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 교 ----- 인도자(설교문참조)

기도제목 ----- 함께 나누고
합심기도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